

|   |                   |                |      |   |  |
|---|-------------------|----------------|------|---|--|
|  |                   | <b>보 도 자 료</b> |      |  |  |
| 보도일시  | 배포 즉시 보도          |                |      | 총 3쪽(붙임 1쪽 포함)  |  |
| 배포일시  | 2014. 12. 15.(월)  |                | 담당부서 | 국립국어원 어문연구과   |  |
| 담당과장  | 이승재(02-2669-9711) |                | 담당자  | 학예연구관 이대성(02-2669-9712)   |  |

## **‘빼지다’, ‘꼬시다’, ‘딴지’ 등 표준어로 인정** **— 「2014년 표준어 추가 사정안」 발표 —**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어원(원장 민현식)은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으나 그동안 표준어로 인정되지 않았던 **‘빼지다, 놀릿감, 속앓이, 딴지’ 등 13항목의 어휘를 표준어로 인정한다는 내용의 「2014년 표준어 추가 사정안」**을 발표하고 인터넷으로 제공되는 『표준국어대사전』 (<http://stdweb2.korean.go.kr/main.jsp>)에 반영하였다.

국립국어원은 1999년에 국민 언어생활의 길잡이가 되는 『표준국어대사전』을 발간한 이후 언어생활에서 많이 사용되지만 표준어로 인정되지 않은 단어들을 검토하는 일을 꾸준히 해왔다. 그 결과 지난 2011년에 ‘짜장면, 맨날, 눈꼬리’ 등 39항목을 표준어로 추가하였으며, 올해 다시 ‘빼지다, 놀릿감, 속앓이, 딴지’ 등 13항목을 표준어로 추가하게 되었다. 이번에 추가된 표준어는 올해 8월 29일 국어심의회(위원장 서정목)를 통과하면서 최종 확정된 것으로서, 그동안 국립국어원이 어문 규범과 『표준국어대사전』의 보완을 위해 시행해 온 어휘 사용 실태 조사와 말뭉치 검색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실제 언어생활에서 사용 빈도가 높고 표준어로 인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은 것들을 선별한 것이다.

이번에 새로 표준어로 인정한 항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현재 표준어와 같은 뜻으로 널리 쓰이는 말을 복수 표준어로 인정한 경우이다. 그동안 ‘빼지다’는 비표준어로서 ‘빼치다’로 써야 했으나 앞으로는 ‘빼지다’도 ‘빼치

다'와 뜻이 같은 표준어로 인정된다. 이렇게 복수 표준어로 인정된 말은 '빠지다', '눈두덩이', '구안와사', '초장초', '굽신거리다' 등 모두 5항목이다.

복수 표준어를 인정하는 것은 '발음이 비슷한 단어들이 다 같이 널리 쓰이는 경우에는 그 모두를 표준어로 삼는다'는 「표준어 규정」의 원칙을 따르는 것으로, 이미 써오던 것('빠치다')과 추가로 인정된 것('빠지다')을 모두 교과서나 공문서에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표준어를 익히기 위해 따로 수고를 들일 필요 없이 둘 중 선호하는 어휘를 자유롭게 사용하면 된다.

둘째, 현재 표준어와는 뜻이나 어감이 달라 이를 별도의 표준어로 인정한 경우이다. 그동안 '놀잇감'은 '장난감'으로 써야 했으나 '놀잇감'과 '장난감'은 쓰임이 다르기 때문에 '놀잇감'을 별도의 표준어로 인정하였다. 이렇게 별도의 표준어로 인정된 말은 '놀잇감', '개기다', '사그라들다', '속얹이', '허접하다', '딴지', '섬찔', '꼬시다' 등 모두 8항목이다.

한편, 국어심의회에서는 'RADAR(radio detecting and ranging)'의 한글 표기로 '레이다'와 '레이더'를 복수로 인정하기로 결정하였다. 원어 발음이 [reɪda:(r)]인 것을 반영하여 '레이다'를 기본적인 표기로 새로 인정하되, 교과서 등에서 그동안 널리 써온 '레이더'도 관용적인 표기로 인정하기로 한 것이다.

국립국어원은 언어 사용 실태 조사 및 여론 조사를 통하여 국민의 언어생활에 불편한 점이 없는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규범에 반영함으로써 국민들이 국어를 사용할 때에 더욱 만족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계획이다.

[붙임] 새로 추가된 표준어 목록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 설명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립국어원 어문연구과 학예연구관 이대성(02-2669-9712) 또는  
문화정책관실 국어정책과 학예연구관 강미영(044-203-2538)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재 표준어와 같은 뜻을 가진 표준어로 인정 한 것(5개)

| 추가된 표준어 | 현재 표준어 |
|---------|--------|
| 구안와사    | 구안괘사   |
| 굽신*     | 굽실     |
| 눈두덩이    | 눈두덩    |
| 빠지다     | 빼치다    |
| 초장초     | 작장초    |

\* ‘굽신’이 표준어로 인정됨에 따라, ‘굽신거리다, 굽신대다, 굽신하다, 굽신굽신, 굽신굽신하다’ 등도 표준어로 함께 인정됨.

○ 현재 표준어와 뜻이나 어감이 차이가 나는 별도의 표준어로 인정 한 것(8개)

| 추가 표준어 | 현재 표준어 | 뜻 차이   |
|--------|--------|--|
| 개기다    | 개개다    | 개기다: (속되게) 명령이나 지시를 따르지 않고 버티거나 반항하다.<br>(※개개다: 성가시게 달라붙어 손해를 끼치다.)  |
| 꼬시다    | 피다     | 꼬시다: ‘피다’를 속되게 이르는 말.<br>(※피다: 그럴듯한 말이나 행동으로 남을 속이거나 부추겨서 자기 생각대로 끌다.)   |
| 놀잇감    | 장난감    | 놀잇감: 놀이 또는 아동 교육 현장 따위에서 활용되는 물건이나 재료.<br>(※장난감: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여러 가지 물건.)  |
| 딴지     | 딴죽     | 딴지: ((주로 ‘걸다, 놓다’와 함께 쓰여)) 일이 순순히 진행되지 못하도록 훼방을 놓거나 어기대는 것.<br>(※딴죽: 이미 동의하거나 약속한 일에 대하여 딴전을 부림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 사그라들다  | 사그라지다  | 사그라들다: 삭아서 없어져 가다.<br>(※사그라지다: 삭아서 없어지다.)  |
| 섬찔*    | 섬뜩     | 섬찔: 갑자기 소름이 끼치도록 무시무시하고 끔찍한 느낌이 드는 모양.<br>(※섬뜩: 갑자기 소름이 끼치도록 무섭고 끔찍한 느낌이 드는 모양.)   |
| 속얹이    | 속병     | 속얹이: 「1」 속이 아픈 병. 또는 속에 병이 생겨 아파하는 일.<br>「2」 겉으로 드러내지 못하고 속으로 걱정하거나 괴로워하는 일.<br>(※속병 「1」 몸속의 병을 통틀어 이르는 말 「2」 ‘위장병」을 일상적으로 이르는 말 「3」 화가 나거나 속이 상하여 생긴 마음의 심한 아픔) |
| 허접하다   | 허접스럽다  | 허접하다: 허름하고 잡스럽다.<br>(※허접스럽다: 허름하고 잡스러운 느낌이 있다.)  |

\* ‘섬찔’이 표준어로 인정됨에 따라, ‘섬찔하다, 섬찔섬찔, 섬찔섬찔하다’ 등도 표준어로 함께 인정됨.